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11월 16일(화) 총 2매		
담당 부서	농업기술센터	담 당 자 • 도시농업지원팀 손미리 ☎440-6944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밝혀 주는 반딧불정원으로
치유농업을 경험해 보아요
-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장인 대상 치유농업프로그램 실시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18일, 남동구에 위치한 반디치유농장에서 치유농업프로그램 ‘반딧불정원 만들기’를 직장인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치유농업프로그램은 농장에 조성된 치유정원을 거닐며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나만의 작은 반딧불정원을 직접 만들어보는 등 업무현장에서 겪는 관계갈등 및 직무스트레스 완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

한편 최근 농업은 더 이상 생산에 초점을 둔 1,2차 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체험농업을 넘어선 치유농업으로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유지·증진을 위해 농업·농촌자원과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2021년 3월, 한국형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며, 이에 발맞춰 인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올해 치유농업 맞춤형 농가를 1개소를 육성했다.

또한 도시근교 농업의 장점을 살려 도시민들이 언제든 들러 식물과의 교감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심신의 안정을 찾고, 동네배움터의 역할도 할 수 있는 맞춤형 공간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했다.

조영덕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직장인들이 치유농업으로 힐링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치유농업 육성으로 농가의 새로운 활로 및 소득원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도시농업지원팀(032-440-6942~4)으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관련 사진

